

한 국 사

문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문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나)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 - 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 -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 -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문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궁을 짓게 하고 창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문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패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중략)…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 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문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문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 품(品)의 (가) 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문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을사조약	13도 창의군
발발	강제 체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문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문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웅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문 10. 밑줄 친 ㉠ ~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②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④ ㉣ -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였다.

문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문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문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 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문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호 ‘신라’ 확정	9주 5소경 설치	대공의 난 발발	독서삼품과 실시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靑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문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문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 (중략) ...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문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해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 되어 있었다.

- | (가) | (나) |
|---------------|-------------|
| ① 조 · 일무역규칙 | 조 · 미수호통상조약 |
| ② 조 · 일무역규칙 | 조 · 러수호통상조약 |
| ③ 조 · 일수호조규부록 | 조 · 미수호통상조약 |
| ④ 조 · 일수호조규부록 | 조 · 러수호통상조약 |

문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를 편찬하다.

- ①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문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찌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 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조선얼’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주석 · 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 하였다.
- ④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문 2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나) → (라)
- ④ (다) → (나) → (가) → (라)